

# 2024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5.30.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8/10	3	1	12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손영준,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박화선  
안성희, 이상현, 이성우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국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 경영진 외 : 시청자센터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1	16	-	-	-	16	-	17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7	-	-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p>보도</p>	<p>4월 5일 뉴스 투나잇에서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를 보도하면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를 들으면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왜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무효화 했는지 판결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를 할 때는 결과만 보도하기보다는 내용도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강건기 위원)</p>	<p>그 당시에 야근 기자가 외신을 기초로 단신으로 보도가 됐고 그다음 날 저희가 리포트로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한 결정 사유 같은 것들이 보도되었습니다.</p> <p>&lt;24.4월 조치&gt;</p>	<p>‘24.4월</p>
<p>보도</p>	<p>홈페이지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메인 화면 중간 부분에 1시간 내 ‘최신’ 보도된 내용을 별도로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한계가 있겠으나, 특정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이제는 연합뉴스TV 하면 떠오르는 소위 ‘간판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합니다. (안성희 위원)</p>	<p>저희가 여러 주어진 여건 하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편 때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투자 안 하고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 6월 개편에 새로운 프로그램 ‘뉴스잇’과 ‘주간 뉴스 한판’ 신설하였으며, 기존 ‘뉴스 1번지’에도 경제부 기자들이 매일 생활 밀착형 이슈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경제 속속’ 신설하여 보강하였습니다.</p> <p>&lt;24.6월 조치&gt;</p>	<p>‘24.4월</p>
<p>보도</p>	<p>사회분야 의견, 4월9일 16:01 연합뉴스TV의 전세 사기 피해 과다 보도 여파로 세입자 감소,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보도에서 전세 계약 절차나 방법 등은 안내하는 내용을 보도하면 피해 감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안호림 부위원장)</p>	<p>6월3일 ‘뉴스 잇’ 주인 잃은 집...전세사기 ‘2차 피해’ 보도를 집중적으로 현장 밀착 취재 및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화상 연결하여 피해 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p> <p>&lt;24.6월 조치&gt;</p>	<p>‘24.4월</p>
<p>총 건수</p>		<p>3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4. 01. 01.~ '24. 12. 31.)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흥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	18.7.1.~24.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21.11.01~25.10.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23.02.01~25.01.31
박세진	1981.08.06	(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	23.06.01~25.05.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4. 1. 1. ~ '24.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손영준	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전)국회 언론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부위원장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편집위원	성정문화재단	문화	
위원	허인순	현)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전)한진엔지니어링 설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	
위원	서신석	현)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전)한국유비쿼터스협회 부회장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학부모 단체	
위원	강건기	현)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 단체	
위원	진한수	현)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전)서초경찰서 상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안성희	현)선진노무법인 부대표 전)서울특별시 마을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단체	
위원	이상헌	현)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전)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위원	이성우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지원실 과장 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실 과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등 소외단체	
위원	박화선	현)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부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사건은 이번 달 9일 밤 11시 40분경 일어났다. 연합뉴스TV는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속보와 스트레이트, 리포트로 보도해 왔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임에는 분명하나,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소식인지는 의문이다. 많을 때는 하루에 20건 이상 보도된다. <이	가수 김호중 사안 자체가 유명한 연예인이 관련된 사안이어서 자칫 옐로우 저널리즘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를 많이 갖고 있고 내용도 좀 충격적이며 재미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사가 되는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매체가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보도했던 사안입니다. 저는 초창기 보도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사안이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계속 선정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일탈 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전통 매체의 퇴조와 함께 24시간 뉴스채널 보도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막장 사건을 전 국민이 지금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우리 사회와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의문이다. 연예인 뉴스는 일반적으로 시청률을 올리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연합뉴스TV는 시청자들이 반드시 보고 알아야 할 심층 뉴스를 좀 더 살펴줬으면 좋겠다.(손영준 위원장)	너무 선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와 기사 작성, 송출 과정에서 자막과 앵커멘트 등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데스크킹을 철저히 하면서 조심했습니다. 선정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는 김호중 씨가 출두할 때에 수갑을 찬 부분을 불러 처리했습니다. 다른 방송들은 그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다만, 거의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안이 실시간 보도된다고 느낄 정도로 보도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안이 연예인의 일회성 단순 사고를 넘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도 채널이다 보니 보도가 많아 보였지만, 나름 굉장히 담담하게 차분하게 보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보도 *시청자 불만활용</p>	출연자 진행건, 5월 9일 뉴스센터 13 경제읽기 코너: 진행자가 출연하는 패널에게 호응을 하고 싶으면 "예" 또는 "네"라고 보통 하는데 방송에서 "응", "으" 이런 추임새로 진행하시는데 경어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석이면 상관없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말씀하신 내용 진행자에게 유의하라고 주문하겠습니다.	○		
<p>편성 *시청자 불만활용</p>	편성에 대한 의견, 5월 14일 라이브 투데이를 보는데 앞 시간 뉴스와 같은 내용으로 리포트, 단신 여러 번 방송을 보니 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아침 시간이라 새로운 기사가 많지 않고 거론하신 아이템은 전날 있었던 주요 뉴스들이라 매시간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담, 코너 등이 있지만 핵심적인 리포트, 단신은 뉴스 가치 면에서 빠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지루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보도 *시청자 불만활용</p>	<p>자막 스크롤 오타, 5월 15일 뉴스10에서 시작화면 광고 제공 자막이 새마을금고로 나갔는데 바른 표기인 새마을금고로 오타 체크 부탁드립니다.(안호림 부위원장)</p>	<p>지적하신 사항 즉시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오타자 더 주의하겠습니다.</p>	○		
<p>보도</p>	<p>기후 플레이션의 습격...먹거리 물가 '출렁', [경제읽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여도를 품목별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보도였고, 향후 기후 플레이션에 대한 심층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뉴스TV에서 모니터링 역할을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허인순 위원)</p>	<p>각종 이상 기후로 인해 과일, 채소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가 있어 '기후 플레이션'으로 제목을 잡고 다양한 보도를 통해 기후와 물가의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며 물가를 자극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따른 먹거리 물가 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p>보도</p>	<p>"최저 임금 미만을 발표 두고 갑론을박...회의 전부터 신경전" 보도, 5월이 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 임금 협상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시기에 최저 임금 첫 1만 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뉴스 보도를 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생각이 든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의제인 만큼 뉴스 보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데, 경제 단체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한 분야로 꼽히는 돌봄 노동자가 주로 속한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주장과 노동계의 지난 2년간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국노총</p>	<p>말씀하신 임금 관련 미만을, 영향률, 전문용어를 저희가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쓴 것은 데스크링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의 언어는 최소한 중학생 수준에서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정도의 방송이라야 퀄리티 있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정책 차장의 "(경총의) 미만율과 영향률 통계는 최저임금위원회조차도 통계의 불안전성을 인정..."에서 미만율과 영향률에 대한 뜻을 부연 설명이 있었더라면 더 뉴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신석 위원)				
보도	최근 들어 연합뉴스TV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 이슈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도 건수를 살펴보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보도가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공영방송 연합뉴스TV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체계적으로 기획취재 보도한다면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심각성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도박 근절 및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서신석 위원)	청소년 도박 예방 주관 첫 운영 관련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는 6월 3일부터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뉴스 잇' 이라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젊은 기자 앵커가 중심이 돼 문제 있는 현안을 쫓아가서 전달하는 코너가 포함됩니다. 저희가 문제 의식을 갖고 관련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논술·면접서 대학 수준 문제 낸 한양대 등 8곳 지원 중단 보도 관련, 5월 8일 뉴스 03에서 논술·면접서 대학 수준 문제를 낸 한양대 등 8곳 지원 중단을 보도하였습니다.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 결정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런 보도는 짧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지원 중단 결정의 배경과 이유를 길더라도 상세하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4년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 단계평가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대학별 고사의 문제점과 정부의 지원 중단 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해당 대학들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도 함께 균형 있게 보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강건기 위원)	논술 면접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단신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사안 자체가 사실 단신 처리로 그치지 않고 좀 심층적인 리포트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당시는 사회부가 다 의대 정원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여 보도 하겠습니다.	○		
보도	대학가 반전 시위 보도들 관련, 4월 24일	그 당시에 단신으로 보도가 됐고 그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부터 연합뉴스TV는 반전 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대학가의 격화되는 반전 시위 보도, 독일 대학가의 반전 시위 보도, 유럽과 중동으로 확산된 반전 시위 보도 등 전세계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 시위의 현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 관련 기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시위의 원인, 참여자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나 관련 기관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마스-이שראל 분쟁 원인, 반전 시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포함시켜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방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건기 위원)</p>	<p>때는 아마 야근 기자가 외신을 기초로 단신으로만 처리를 했던 것 같고 그다음 날 저희가 리포트로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세한 결정 사유 같은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야간에도 단신 작성할 때부터 그런 점들을 좀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야근 기자다 보니까 조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도 좀 더 충실한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p>			
<p>보도</p>	<p>범인 도피처 된 동남아... '꼼수'에 국내 송환 험난, 해당 보도는 앵커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범죄자들의 주요 도피처가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필리핀 도피 사범이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박 모 씨가 수감돼있던 필리핀 교도소의 허술한 관리 감독은 범죄자들이 국내 송환을 피하려는 이유로 해석된다는 구체적인 분석까지 내놓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외교적 신뢰와 양자 간 사법 체계 공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입니다. 사례의 소개와 배경의 분석,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까지 취재와 보도가 매우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보도에서는 필리핀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라고 소개하여 다른 동남아 국가들 역시 범죄 도피처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다소 우려가 되었습니</p>	<p>말씀하신 동남아권은 제목도 잘못 뽑고 기사도 잘못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거에 필리핀 외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기사가 염두에 두고 기사를 작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데스크를 철저하게 봐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다. (진한수 위원)				
보도	<p>교제살인 피해자 138명...보호·처벌 법안은 계류 중, 해당 보도는 최근 강남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건을 소개하면서,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살해된 여성의 수가 138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교제 살인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정부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교제살인의 피의자 김레아 씨의 사진이 화면에 10초가량 나오는데, 해당 사례의 소개가 짧게 언급된 후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피의자의 얼굴이 필요 이상으로 화면에 길게 노출되어 있어 보도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고 보도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진한수 위원)</p>	<p>피의자 머그샷 얼굴 공개 건과 관련하여는, 피의자 역시 인권이 있는 만큼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적절하게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얼굴을 10초나 노출한 것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며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변호사 인터뷰 부분은 혼동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인터뷰 과정에서 요구하거나, 다음 문장에서 부연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추후 관련 사건 발생 시 충분히 반영해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p>	○		
보도	<p>[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시민 수준 우려 지자체의 졸속 '공공 조형물'은 왜? 5월20일,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공 조형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조형물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만들고 이를 치적으로 삼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꼽히며 철거되거나 흉물처럼 방치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지역 공공 조형물들이 각 시, 도, 군 단위까지 설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많은 실패 사례도 있는 반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조형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상반된 사례에서 볼 때 어떤 차이가 성공과 실패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심층</p>	<p>한강에 흉물이 된 조형물들에 관한 제보와 문제의식을 갖고 준탐사 성격의 취재로 만들어진 콘텐츠였습니다. 근데 이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은 비판과 고발성 취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잘한 사례보다는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성공한 경우의 사례도 들어 양쪽을 비교하며 취지를 좀 더 부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분석을 통한 후속 방송을 통해 각 지역에 사랑받는 혹은 애물단지가 된 공공 조형물들의 소개를 통해 공공 조형물을 준비하는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박화선 위원)				
보도	[이슈5]는 '지금 이 시각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로 5가지 이슈를 10분 내외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보도 채널의 특성상 24시간 많은 내용의 뉴스들이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간략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5가지로 선정된 이슈들이 관심을 가질만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논란을 불러온 '김호중 뺑소니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5.17 이슈5에서 짧은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를 강행하고 이를 지지하는 팬덤 문화에 대해 유사 사례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슈를 잘 선정해 신속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코너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안성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슈5'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보통 시청자들의 경우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이제스트 성격의 뉴스들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가 사실 잘 먹힙니다. 저희가 취지를 살려 좋은 아이템 선정해서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		
보도	경제계 소식을 간략히 소개하는 비즈&(앤) 코너를 봤습니다. 여러 기업의 해외수상이나, 친환경 활동, 업무협약 등 굉장히 다양한 소식을 담았고, 기부나 봉사활동, 후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 뉴스가 다루기도 어렵고, 시청자	비즈&(앤) 코너는 경제부에서 기업들의 현안과 트렌드를 통해 다양한 기업활동을 시청자에게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주로 기업의 일방적인 홍보보다는 기부 활동이나 후원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해왔습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들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간략한 기업 소식 전달이 보다 쉽게 경제 분야를 터치할 수 있다는 점, 더구나 사회 전반에 기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유익한 코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서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니다.			
보도	최근 다뤘던 경제 뉴스 중에는 리포팅이 상당히 깔끔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 삼성·SK, 연구개발·시설투자 모두 늘려'(5/19), '제4이통 자금력 우려 지속...스테이지엑스 "문제없다"'(5/21) 등은 현황과 이슈를 명확히 짚어주고, 전문가 인터뷰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 내용을 짜임새 있게 잘 풀어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이슈를 정리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연합뉴스TV의 역량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상헌 위원)	반도체 보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경제부에 반도체 기사에 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		
보도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어색함을 느낄만한 헤드라인이 몇 개 있었는데요. 지난 15일 '쿠팡 김범석·두나무 송치형, '총수 동일인' 지정 피해'라는 보도의 경우 동일인 지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지정을 피했다는 것인지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사찰 찾은 두 부분에 차량 돌진.. 남편들 숨져'(5/16)라는 보도에서는 굳이 두 부부나 남편들이라는 표현을 써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헤드라인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거나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좀 더 섬세하게 작성되었으면 좋	총수 동일인 지정 피해는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부, 남편의 표현은 기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려다 보니 뽑은 제목인데 굳이 쓸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부분으로 보입니다. 제목, 헤드라인을 뽑는데 있어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겠습니다.(이상헌 위원)				
보도	5월 8일 어버이날과 관련해 연합뉴스TV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어버이날 행사 첫 참석, 여당 의원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주장을 비롯해 '어버이날인데...쓸쓸한 홀몸 노인·취준생은 감사 마음만'과 같이 주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조명, '고물가에 달라진 어버이날...카네이션 대신 먹거리로', '어버이날 선물 1위는 용돈...10만~20만원 가장 많아' 등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뉴스포커스에서는 하재근 문화 평론가를 모셔서 고물가와 경제 불황으로 어버이날 모습이 바뀌고 있는 세태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10분 남짓의 시간 동안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현재가 어떠한지를 잘 흥미롭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이성우 위원)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어버이날 관련 기사를 집중 보도했었습니다. 한 이틀 걸쳐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템을 찾아 비중 있게 보도하겠습니다.	○		